

## 2018 동방경제포럼 결과

제4회 동방경제포럼은 2018년 9월 11~13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되었다. 포럼의 핵심 주제는 '극동: 가능성의 지평을 확장하다'였다.

"우리는 내년 동방경제포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동방경제포럼 공식일정 세션들의 결과에 따라 극동 발전의 핵심 분야들인 물류, 에너지, 천연자원 사업의 발전 방향이 제시됩니다. 세션 진행자들은 동방경제포럼 토론을 통해 구상된 제안들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책임감을 높일 뿐 아니라 포럼 논의 내용이 국가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보합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가 밝혔다.

### 1. 일정

포럼 일정에서 지역 및 국제 현안을 다루는 100개 이상의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패널토론, 비즈니스 조찬, 원탁회의, TV토론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토론들은 4개의 주제 블록들로 분류되었다.

- 투자자 지원 정책: 다음 단계
- 극동 산업분야별 우선순위
- 글로벌 극동: 국제협력프로젝트
- 사람들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포럼의 핵심 행사는 '극동: 가능성의 지평을 확장하다'를 주제로 한 플레너리 세션으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몽골 하트말긴 바트툴가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대한민국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였다. 플레너리 세션 사회는 세르게이 브릴로프 방송인, 러시아 채널 부사장, 베링-벨린스하우젠 판아메리카 연구소장이 맡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태지역에 국제협력과 통합, 사업 및 투자활동, 교육, 과학 및 문화의 강력한 중심지를 극동에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지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민들의, 극동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동방경제포럼은 이미 3회나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며 협력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전례없는 규모로 각국의 손님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하트말긴 바트툴가 몽골 대통령은 "매년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은 아태지역 국가들간 협력발전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협상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고위급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포럼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재 러일관계는 전례없는 추진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협의한 양국간 협력은 이미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추진중이거나 착수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대한민국 총리는 "동북아 정상들이 극동 발전과 지역 안보 및 번영을 위한 노력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동방경제포럼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언급하였다.

### 참고정보:

동방경제포럼에서 아래와 같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 비즈니스 대화 5개 (러시아-아세안, 러시아-유럽, 러시아-중국, 러시아-한국, 러시아-일본)
  - 러한 및 한러 기업투자협의회 비즈니스 조찬
  - 비즈니스 조찬 '극동연방관구 지역들의 투자 돌파구: 향후 방향은?'
  - 러시아, 중국 주지사들 원탁회의
  - 러중정부간 회의
  - APEC 교육국제컨퍼런스
  -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세션
  - 러시아24채널,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TV토론회
  - 스페르방크 플래너리 세션: '과도기 세계의 교육: 새로운 우선순위'
  - 디지털경제대학 설명회
  - 홍콩국제중재센터의 소송준비전략 세미나
  - 극동 투자프로젝트 및 투자매력 설명회:
- 극동 투자자 및 수출업자 디지털 플랫폼 설명회
- '극동 수출 산업' 러시아 수출 센터 인터랙티브 세션
- 투자총액 1조 1620억 9330만 루블의 28개 투자프로젝트 설명회
- 동방경제포럼 교육 공간:
- 포럼 청소년 공간 강의실, 러시아 및 해외 유명 인사들의 디지털 경제 발전, 교육 시스템, 에너지 협력에 대한 강연. 연사목록: '시부르 홀딩' 드미트리 코노프 대표이사, '로스나노' 아나톨리 추바이스 회장, 중국해외기업발전연합 허첸웨이 사무총장, 대한민국 송영길 국회의원, 권충래 인천국립대 명예교수 외
- 집중교육프로그램 '10-21 아일랜드'
- 개막식 및 '사회투자연구소' 10개 사회 세션
  - '혁신지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혁신대전목마 제막식

## 2. 참가자

동방경제포럼에 60개국 6002명의 참가자들과 1357명의 언론인들이 모였다. 참가자 (공직자 및 사업가) 수 순위는 중국 (1096명), 일본 (570명), 한국 (335명), 몽골, 미국, 영국 순이다. 북한은 12명을 파견하였다.

동방경제포럼을 방문한 외국 정상 및 고위공무원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 몽골 하트말긴 바트툴가 대통령, 대한민국 이낙연 총리, 일본 아베 신조 총리다.

포럼에 340명 이상의 외국 기업 수장들이 참석하였다. 동방경제포럼을 이번에 처음 방문한 각각 FortuneGlobal 500 순위에서 3, 4위인 중국 최대 석유기업 2개사 수장들도 있었다:

시노펙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다이허우량 회장,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왕일린 회장

- 첸립징, NagaCorp Ltd 설립자, 사장, 대주주
- 슈인바오, 중국 국가전망공사 회장
- 류준, 중앙그룹 (COFCO) 회장
- 류치타오, 중국 교통건설유한회사 회장;
- 르네 베르크벤스, 대표이사, Damen Shipyards Group NV;
-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 문성준 LS네트웍스 대표이사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전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 브라이언 창, 이사, Singapore Oil and Energy Pte Ltd;
- 크리스티안 볼펜스베르게르, 회장, Molumin AG;
- 호소노 테즈히로,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 회장
- 사토 마사유키, 회장, 대표이사, JGC Corporation
- 산토 마사지, 회장, 대표이사, Chiyoda Corporation;
- 니시지마 다카시, 회장, 대표이사, Yokogawa Electric Corporation;
- 코가이 마사미치, 회장, 대표이사, Mazda Motor Corporation;
- 아사다 테루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일러경제위원회 의장
- 이이지마 마사미, 미쯔이 회장
- 니시카와 에이치, 회장, 대표이사, Iida Group Holdings Co Ltd;
- 템마 유키오, 대표이사, Hokkaido Corporation.

또한 **383명**의 러시아 기업 수장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표적인 인사들은:

- 이고르 슈발로프, 대외경제은행 총재
- 아나톨리 추바이스, 로스나노 지주회사 회장
- 블라디미르 예브투셴코프, '시스템아' 회장
-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연합조선사 회장
- 세르게이 프랑크, '소브콤플로트' 회장, 대표이사
-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기금 사장
- 알렉산드르 듀코프, '가스프롬 석유'사 회장, 대표이사
- 알렉산드르 아브라모프, EVRAZ 회장

러시아 및 외국 공무원들 중 러시아 부총리 5명, 러시아 장관 11명, 연방 국장 및 청장 12명, 주지사 19명, 베트남, 인도, 북한, 중국, 몽골, 일본 6개국의 장관 9명이 포함되었다.

11개국 대사들도 참여하였다: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멕시코, 몰도바, 몽골, 한국, 살바도르, 필리핀, 프랑스, 일본

고위급 인사에 알리모프 라시드 상하이협력기구 사무총장, 사르키산 티그란 유라시아경제연합 의장도 포함되었다.

### 3. 협약

임시집계에 따르면 동방경제포럼에서 총 3조 1080억 루블 규모의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협약 220건이 체결되었다.

####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된 주요 협약:

- '바임스카야 광산'사, 'KAZ Minerals PLC', 추코트카 자치구 정부와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3600억 루블 규모의 바임스카야 광물산지 (추코트카 자치구) 개발 투자프로젝트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연합항공산업사와 아에로플로트 항공사가 2100억 루블 규모의 '수호이 슈퍼젯-100'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호드카 광물비료'사와 KRDV사가 메탄올 및 암모니아 생산 공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 노바텍, 캄차카주정부, 극동개발부가 695억 루블 규모의 캄차카 LNG 환적 및 저장 터미널 건설 MOU를 체결하였다.
- 러시아직접투자기금, 일본 Marubeni사, 인프라기업 AEON이 볼고그라드 화학클러스터 조성 파이낸싱 팀시트를 체결하였다.
- 러시아직접투자기금, 알리바바 그룹, 메가폰, Mail.Ru 그룹이 전략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및 CIS 소셜커머스 분야 최대 합자기업을 설립, 러시아 주요 인터넷 및 이커머스 플랫폼 통합 추진
- 투자유치 및 수출 진흥청 페투호프 사장과 '이이다 그룹' 니키사와 요이티 사장이 149억 6000만 루블 규모의 목재주택 건자재용 목재가공 공단 건설 프로젝트 추진, 저층목재주택 건설 및 분양을 위한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 니콜라예프 사하공화국 (야쿠티야) 대통령 직위대행과 셸류틴 DVEUK 사장이 150억루블 규모의 사하공화국 (야쿠티야) 사회경제발전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 코빌킨 러시아 천연자원 및 환경부 장관과 코로타예프 Duracell Russia 사장이 2등급 위험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호혜적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로스네프트 석유공사와 Beijing Gas Group이 러시아 내 차량 가스충전소 체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팀시트를 체결하였다.
- 가스프롬과 일본 미쯔이가 발틱 LNG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여 해당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극동개발사와 로스텔레콤이 극동 18개 선도개발구역을 광케이블망에 연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노바텍과 로스아톰플로트가 LNG를 연료로 하는 쇄빙선단을 개발하고 건조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 4. 포럼 파트너사

포럼 파트너사는 총 43개사로 아래 기업들도 포함된다:

- 포럼 총괄 파트너 4개사: 러시아수출센터, 로스네프트, 가스프롬, 루스하이드로.

- 포럼 공식 파트너 11개사: FESCO, Transport Group, 콜마르, 알로사, VTB은행, 로스아톰, 가스프롬뱅크, 러시아철도공사, 폴류스 크라스노야르스크, 러시아농업은행, MSP은행, 보스토크우골.

## 5. 전시회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된 전시회들은 아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극동에서 사업하세요' 전시회 (중국측의 '러중 경제통상협력 성과' 사진전 포함)
2. '극동으로 환영합니다' 전시회
3. 생선요리 레스토랑 전시회
4. 2018동방경제포럼 파트너사 비즈니스 구역
5. 연방 행정기관 전시회
  - 러시아 산업통상부
  - 러시아 교통부
  -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 러시아 환경부/러시아 천연자원청/러시아 산림청
  - 러시아 농업부
  - 케메로보 주
  - 극동 사회경제발전 정보지원재단

## 6. 포럼 사진전

- '극동의 자연보호구역' 사진전
- '러시아 수중 보고' 사진전
- 러시아 일본의 해, 일본 러시아의 해 사진전
- '러시아와 일본, 석탄 환적의 혁신과 환경보호' 사진전
- '붉은 돛' 사진전

## 주지사 영접실

동방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주지사 영접실이 운영되었다. 해당 형식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입증된 행사이다. 주지사 영접실을 통해 16개 지역 정부가 참여하는 면담들이 진행되었다: 추코트카 자치구, 아무르주, 유대인 자치구, 우드무르티야, 탐보프주, 카렐리아, 야로슬라브주, 이르쿠츠크주, 한티만시스키 자치구, 사할린주, 부랴티야, 야쿠티야, 타타르스탄, 캄차카 변경주, 하바롭스크 변경주, 케메로보주, 마가단주.

## 6. 숙박

포럼 참가자들과 언론인들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26개 호텔과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내 7585개 객실이 준비되었다. 올해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Costa neoRomantica** 럭셔리급 크루즈선 고급 선실들도 숙소로 활용하였고 800명이 투숙하였다.

## 7. 식사

손님들과 참가자들을 위해 종일 식음료를 제공하는 무상 커피브레이크 구역 7개 (Roscongress&Governors`Club 2곳 포함), 레스토랑 3개, 유상카페 20개가 운영되었다.

행사장 내 언론인들을 위한 식사공간은 커피브레이크, 오찬, 만찬의 형태로 D, G동에 별도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 8. 차량

포럼 공식 차량은 사륜구동 세단 Hyundai Genesis G80였다. 해당 차종 215대가 포럼 차량으로 운영되었다.

포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와 극동연방대학교 간 및 문화 체육 행사장, 캠퍼스 내 운행 셔틀버스가 조직되었다.

## 9. 자원봉사자

포럼에 연해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소치, 아르항겔스크로부터 58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임무는 참가자들을 위한 서비스지원이다.

## 10. 행사장

2018년도 동방경제포럼 진행을 위해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의 1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이 사용되었다.

## 11. 언론

올해 포럼에 443개사 (러시아 268, 외국 175) 1357명의 (러시아 941, 외국 416) 언론인들이 활동하였다. 참가 신청은 25개국으로부터 접수되었다 (러시아 제외): 영국, 베트남, 독일, 홍콩, 덴마크, 이집트, 인도, 이라크, 이란, 스페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카타르, 중국, 몽골, 한국,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미국, 핀란드, 프랑스, 체코, 스위스, 일본.

## 12. 문화 및 체육행사

체육행사의 메인 이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원하는 지고로 카노 청소년 (남여 18세 이하) 유도 국제 토너먼트였다.

#### 참고정보:

문화 체육 행사의 일환으로 아래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 러시아 경제개발부배 국제 바둑 토너먼트
- 마스레슬링 국제 토너먼트
- 블라디보스토크 루치, 양쯔 양반푸데 국제 친선 축구경기
- 로스콩그래스재단상 테니스 및 탁구 토너먼트, 극동 기업팀 대항전
- '플라두25'급 로스콩그래스배 범선 경주
- '올림픽 순찰대' 프로젝트, 2012년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타기르 하이불라예프, 만수르 이사예프, 아르센 갈스탄, 2008년 올림픽 높이뛰기 챔피언 안드레이 실노프 특강 진행
- '극동의 거리' 전시회
- 포럼 참가자들을 위한 '무엇이, 어디서, 언제' 퀴즈게임, 포럼 방문객들과 블라디보스토크 주민들을 위한 '극동 별자리' 극동 팀 축제
- '야외 영화관' 영화상영장
- '러시아 지도. 모스크바 크레믈린 박물관 소장품으로 보는 역사의 이정표들' 전시회, '위대한 카를. 러시아 국립 박물관 소장 브롤로프와 제자들의 작품' 전시회
- '쿠즈바스' 아트갤러리 활동을 통한 블라디미르 마시코프 배우 겸 감독, 예브게니 그리시코프체프 극작가와와의 만남
- '2018 극동 훈련용 범선 경주' 러시아 예선

### 13. 조직사

2018동방경제포럼 조직사는 사회지향적 비금융 개발기관, 국제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최대 조직사인 로스콩그래스 재단이다.